

무안행복초, 놀면서 배우는 신나는 '인권 체험의 날' 운영

어린이들의 놀권리의 일환, 다양한 놀이체험 프로그램 인권동아리 학생들 중심으로 22개 부스 운영하여 진행

무안행복초등학교는 지난 20일부터 22일 까지 본교 강당에서 인권체험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무안행복초등학교 인권동아리 학생들을 중심으로 '놀면서 배우는 신나는 인권 체험'이라는 주제로 전교생이 참여하였다.

이 날 무안행복초등학교 인권 동아리 학생들은 인권의 소중함을 알리고, 어린이들의 놀권리의 일환으로 다양한 놀이체험을 할 수 있는 인권체험의 날을 열었다.

행사 부스는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만화로 전시하고, 퀴즈로 풀어보는 것 외에도 스티크 중심잡기, 탁구공 핑기, 컵 쌓기, 전통 놀이 체험 등 종류도 다양하였다.

행사를 위해 학생회, 그리고 교사와 동아리학생들은 한달 전부터 틈틈이 회의를 통해

부스 종류를 정하고, 각 반에 있는 놀이 재료를 대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본교 학생수를 고려하여 회의 초반에는 10개 남짓한 놀이부스를 여러 번의 회의 끝에 22개 부스로 늘려서 운영하게 되었다. 한 달 전부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준비한 덕분에 인권체험 행사는 개장 시간부터 많은 학생들의 이목을 끌었다. 저마다 참여하고 싶은 부스에 줄을 서서 즐겁게 놀이하고, 체험하는 모습을 여기 저기서 볼 수 있었다.

이번 인권행사 체험을 마친 3학년 최라은 학생은 "평소에 쉬는 시간이 많이 없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좁아서 아쉬웠는데 강당에서 친구, 형, 누나들과 다양한 놀이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 앞으로도 인권체험 행사를

자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4학년 권윤우 학생은 "인권퀴즈 부스를 운영했는데 저학년 친구들에게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 알려준다는 것에 대한 보람도 느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의 인권에 대해 공부하고 많은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 동아리 활동을 지도하는 김주화 교사는 "우리나라 역사 속 인권의 소중함을 알고 학생들이 서로 어울려 즐겁게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무엇보다 참여하는 학생들이 즐거운 표정으로 체험하는 모습을 보니 담당교사로서 기분이 좋았다. 앞으로도 동아리 학생들과 협의하여 체험 중심의 인권 행사를 자주 가져야겠다"고 말했다.

심재호 교장선생님은 "이번 인권 체험 행사를 위해 학생회, 인권동아리 학생들, 3학년 생활인권 교사팀, 체육담당 교사 등 학교 구



성원 모두가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고, 그에 따라 행사가 안전하고, 즐겁게 잘 진행되었다. 특히 행사가 끝나고 모든 학생들이 남아서 행사 정리를 돕고, 놀이 기구를 정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인권의 소중함을 알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키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로 떨어져 있으면 한 방울에 불과하나 함께 모이면 바다가 된다'라는 말처럼 학생들의 값진 의견들을 모아 실천해 나간다면 무안행복초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친구사랑의 마음이 더욱 더 커지고 풍성해지리라 기대해 본다.

무안=이기성기자

순천대 과학영재교육원, 'STEM+I 생각교실' 사업 신규 선정

전남 동부권 초·중학생 위한 융합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순천대 과학영재교육원이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공모한 '2023 STEM+I 생각교실' 사업을 유치하여 5월부터 12월까지 전남 동부권 초·중학생을 위한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STEM+I 생각교실'은 초·중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 정보과학(Informatics)을 어우

르는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학교 현장에 보급·확산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전국 27개 대학 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가운데 11개소를 선발하였으며, 순천대는 이번에 신규 선정되었다.

순천대 과학영재교육원은 4종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영재교육 담당 교원 및 과학 영재교육에 관심이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시행하고, 연수 이수 교원을 통해 교

육형 영재교육원 및 인선 학교 학생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확산할 계획이다.

한편, 순천대 과학영재교육원은 2003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하여 정부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3,600명 이상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2022년부터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MOU를 체결하여 과학영재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나주 봉황초, 아주 특별한 파티 개최



나주봉황초등학교에서는 최근 전교생들이 모여 아주 특별한 파티를 개최하였다. 바로 1

학년 학생들의 '입학 100일 기념 파티'이다.

학생회 임원들과 교내 또래상담부 학생들이 의논하여 기획하게 된 '입학 100일 기념 파티'는 학교 내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재학생은 물론이고 신입생 학생 수 또한 몇 명 안되기 때문에 다른 학년 학생들끼리도 모두 가족과 같이 잘 알고 평소에도 친누나, 친오빠처럼 잘 대해주는 봉황초등학교의 선배들이 신입생들이 무사히 학교 적응 기간을 잘 보내고 초등학교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자리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나주=송준표기자

화순동북중, 아나바다 장터 개최

화순동북중학교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지난 20일, 학교자율사업 선택제 중 기후변화 환경교육과정 일환으로 아나바다 장터를 개최하여 자원 순환을 통한 기후 행동 실천 시간을 가졌다.

아나바다 장터는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이란 의미로 본인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가정에서 가져오고,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학생이 골라가는 방식의 열린 장터이다.

필요한 물건을 매장에서 구매하면 그만큼

공장에서 더 생산해야 하지만, 아나바다 장터를 통해 구매하면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일 뿐 아니라 새로운 자원의 소비가 아닌 기존 자원의 순환을 통해 기후환경의 보전에 일조하는 기후 행동의 일환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날 교육활동은 학생들 뿐 아니라 교직원들도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과 의류, 신발 등을 장터에 내놓았으며, 판매 역시 학생과 교직원이 함께 함으로써 기후 행동에 상호 협력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데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

화순=박순철기자

영암고, 전남대학교 전공 알림아리 운영

영암고등학교는 지난 22일 목요일 교내 1,2 학년을 대상으로 전남대학교 전공 알림아리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날 실시된 프로그램은 개정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생의 진로 설정 및 진학 설계에 도움이 되고, 단과 대학별 전공 소개를 통해 학생들에게 대학 생활에 대한 안내, 진학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1, 2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선택한 사범대학, 생활

과학대학 등 10여개의 단과 대학의 교수 및 학생 도우미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단과대학에 대한 정보를 교수와 학생을 통해 더욱 생생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참여한 학생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진로 설계와 관련된 단과대학 및 전공학과에 대해 알고 자신의 진로를 다시 한 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암=조대호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